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과 중국-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예브게니 흥 카자흐스탄 국가전략연구소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중국의 5세대 지도부로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가 지닌 전략적 이익으로 인해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반적인 대외정책 상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의 다자협력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프트 파워”를 통한 ‘주변외교’를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중국 서부의 접경국으로서 에너지와 수송·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주요한 협력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 물론 이르티슈 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잠재적인 분쟁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성장에 따른 양국 간의 경쟁 가능성이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정 간섭을 배제하는 중국의 방침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존재는 향후 카자흐스탄-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주제어 중국,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상하이협력기구(SCO), 신실크로드 경제협력 이니셔티브

I. 서론

중국의 부상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세계 정치에서 어떠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인지와 21세기의 새로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상당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이 사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제 중국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역, 특히 주변국들 간의 관계에서 전략적 이익을 가진 중요한 지역적 강대국을 넘어서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 같은 중국의 주변 지역 중 중앙아시아는 여러 강대국의 이해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특히 탈냉전 이후 약화되었던 세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와 9·11 이후 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지역에 진출하게 된 미국의 이해가 예리하게 상충하고 있던 지역이었다(Wishnick,

2002; Hansen, 2005; Blank, 2005; 2007).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Chung, 2004; Swanstrom, 2005; Sahmbaugh, 2006; Sheives, 2006; Millward, 2007; Clarke, 2011), 이 같은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부상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경쟁도 주목을 받고 있다(Petersen, 2013; Michel, 2014).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에너지 자원과 지정학적 이해 그리고 경제적 팽창의 무대로서 이 지역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경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Cohen 2005; Olcott, 2005), 동시에 지역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도 있다. 특히 새롭게 주석이 된 시진핑(Xi Jinping)의 중앙아시아 방문은 중국이 지역안보와 에너지, 무역, 경제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장기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Pantucci, 2014). 이러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조용하여 역내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조심스레 혹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의 최고의 자리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의 신거대 게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Roy, 2000; Cummings, 2001; Luong, 2002; 2004; Edwards, 2003; Klevevan, 2003; Cooley, 2012).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주요한 중견국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지역 국가로 주목받고 있지만(Legvold, 2003),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동적이면서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여 왔다(*China Daily*, 2007; McDermott, 2011; *People's Daily Online*, 2011; Rousseau, 2013). 특히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정책의 전개는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Pantucci, 2014).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핵심적이면서 명백한 이점을 얻을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나 미국과 가지는 더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워싱턴 D.C.나 모스크바의 그것과는 달리 베이징의 전략은 어떠한 국내 정책과 현재 상황에 대한 개입을 회피함으로써 중국을 매력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물론 최근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과연 이 같은 불간섭 및 경제와 안보의 분리라는 원칙을 순전히 지키도록 그대로 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 같은 중국의 정책적 지향이 양국 관계에 대하여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전개시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고 역내 국가들의 조율을 통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목표를 가진다. 특히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대(對)카자흐스탄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그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의 변화에 주목해 볼 것이다.

II. 시진핑 중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

2013년 3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십 년만의 중국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졌다. 리위안차오(Li Yuanchao) 중국 국가 부주석의 예기치 못한 임명 이외에는 권력 교체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국가 운영에서 모든 핵심 인사들은 ‘5세대’ 정치인들로 채워졌다.

‘5세대’ 지도부는 후진타오(Hu Jintao)-원자바오(Wen Jiabao) 이인체제하에서 마련된 대외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CPC: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내에서도 중국의 향후 발전 경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대외 전략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부는 국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는 지난 10년에서 15년간의 개혁개방 시기 동안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다. 그 중에서 일부 – 예를 들어, 사회 계층화와 부패의 심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강화, 정치적 자유화의 요구 증대 등 – 는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세대’ 지도부뿐만 아니라 시진핑 역시 인정한 바 있다(Ivanov, 2013).

따라서 ‘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보다 단호해지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대외정책 기조에 새로운 요소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국제 문제에 대한 “저자세(low profile)” 전략을 버리고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자국의 국가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Bridge, 2012).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제적 역량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대외정책의 개념적 틀인 화평발전(peaceful development)과 후진타오가 제시한 “조화 세계(harmonious world)”(Communist Party of China, 2009)의 건설에 기반한 기존 지도부의 전략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분쟁 예방 조치를 취한다.
- 미국과의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을 하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중국의 핵심 이익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와 영향력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을 중국의 “전략적 배후지(strategic rear)”로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독립국가연합(CIS)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정치적, 가능하다면 군사적 관계까지도 강화한다.
- 세계의 다양한 지역 및 엘리트들에게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파

트너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시킨다.

-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호 대립적인 이익에 대비하고, 세계 정치와 평화 외교의 절충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주도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유리한 협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 증진을 계속한다.

한편, 중국 대외정책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성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경쟁 정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과 유라시아경제연합(EEC: Eurasian Economic Union)의 설립과 같은 지역통합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문제다.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같은 아이디어로 인식되는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은 사실 중국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려는 중국의 프로젝트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한 중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이니셔티브의 진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Salitski, 2013).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은 중앙아시아 탄화수소 시장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내재된’ 경쟁으로 묘사할 수 있다. SCO의 존재는 이와 같이 경쟁을 잠재된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명백한’ 경쟁 상태로의 이행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만약 외부로 표출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치적 경쟁에 기술적인 문제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비록 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상업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경쟁자다.

셋째, 최근 3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행보 역시 문제가 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무역 상대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안보 관리자로서

도 러시아를 대신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SCO의 비전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SCO 메커니즘을 통해 해당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번영과 안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원 분야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중국은 SCO에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지역문제를 다루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적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여 SCO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Din and Li, 2004).

중국은 SCO를 군사적·정치적 블록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다만 SCO가 참여국들 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조직이자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기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적 지역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중국의 우선순위는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베이징은 SCO를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 전략을 위한 잠재적 도구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SCO에서의 중국의 중점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접근하는 것과 더불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중앙아시아를 활용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중국은 SCO의 중심이 안보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증진, 에너지 협력 강화, 교통·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형성,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촉진 등과 같은 분야로 이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SCO를 그들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러시아는 중국의 위와 같은 지역 통합 심화의 노력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의 이익 지역”으로 보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그의 통제 아래 두도록 묶어 놓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자유경제지대를 만들려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하면서도 러시아는 한편으로 관세동맹과 EEC 설립을 진행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SCO의 틀 안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양자 간 자금 제공을 해줌으로써 지역 내 지배력을 증가시키려고 시도 중이다. 2009년에 베이징은 ‘자원담보대출(loan for resources)’의 형태로 카자흐스탄(100억 달러) 및 투르크메니스탄(40억 달러)과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서부 지역의 성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례차례 증진시키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SCO 국가들과의 인프라 건설 투자 규모를 증대시켰다(Avliekulov, 2011). 또한 2009년에 중국은 SCO 내에 반위기안정기금(anti-crisis stabilization fund)을 만들어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단기 자금 대출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 러시아가 공동출자를 거부했지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틀 아래에서 반위기안정기금이 만들어졌다(Cooley, 2010).

중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이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경제 및 무역 분야의 위상에 대해 모스크바가 대응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서방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푸틴은 공동의 위협과 도전 과제에 직면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새로운 중국 지도부의 대(對)중앙아시아 대외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정의될 수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2013).

첫째, 중국은 화평 발전의 길을 고수할 것이며,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각국의 국민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 발전 경로와 현재 대내외 정책을 존중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문제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역내 사안들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영향권을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로서 주권, 영토보전, 국가안보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상호 지지를 기대한다. 중국은 모든 국가들과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며, 양자관계의 경로뿐만 아니라 SCO의 프레임워크에서 함께 ‘세 가지 악’에 대항할 것이다: 마약 밀매, 초국적·조직적 범죄에 대항할 것이며, 지역경제 협력과 평화로운 국민들의 삶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중국 정부는 전략과 목표 간의 유사성이 있는 바 상호 이익에

기반한 실용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유하고 있는 목표에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풍요롭고 강력한 국가, 그리고 민족부흥이 포함된다.

넷째, 중국은 SCO와 EEC를 통한 협력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려는 개방적인 자세와 포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국의 중요한 역할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한 수단 가운데는 경제발전 전략과 지역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서로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포함된다.

핵심 목표는 정치적·법적 수준에서 지역 경제를 통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해 내는 데 있다. 태평양으로부터 발트 해까지를 연결하는 운송·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국은 동·서·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초국경적 운송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다른 수단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 수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물류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무역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통화 흐름을 확대시키는 것 역시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와의 교역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위안화 사용에는 거래에서 현금 비용을 줄이고, 각종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며, 세계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역내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우려하에서 “소프트 파워” 정책을 통해 반중국 정서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민들 간의 관계가 증진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이해와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노력의 첫 걸음으로 시진핑은 SCO 회원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중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각 3만 위안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Witte,

2013).

최근 몇 년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유학하려는 학생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시안의 유명한 대학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앙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신장을 유학 목적지로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루무치에 위치하고 있는 신장사범대학(新疆师范大学, Xinjiang Normal University)의 경우 인접 국가들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2014년에는 94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Xinjiang Normal University, 2014). 신장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더해 과정을 이수한 이후 중국 내 대학에 입학할 생각이 있는 학령기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중국 내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수만 1만 1천 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Forbes* 14/10/19).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요한 기관은 공자아카데미(孔子学院, Confucius Institute)다. 공자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국 지역연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 다리(汉语桥, Chinese Bridge)’라고 불리는 기금은 중앙아시아에 설립된 공자아카데미의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알마티(Almaty), 아스타나(Astana), 카라간다(Karaganda)와 악토베(Aktobe) 네 군데에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비슷한 수의 공자아카데미가 키르기스스탄에도 문을 열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에 따르면, 비슈케크 인문대학(Bishkek Humanities University)에 서만 2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중국 지역연구를 전공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Radiotocbka* 14/01/25).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립대학들에서 공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만 공자아카데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중국식 “소프트 파워” 전략에서 중국의 문화를 해외로 널리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중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구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자아카데미에서는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A Bite of China)”이라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 강좌를 통해 중국의 음식을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중국 요리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언론을 통해서 문화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중국 정부는 대외선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은 뉴스매체인 『신화(Xinhua)』나 『인민일보(People's Daily)』 해외판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신문매체로는 『인민일보』나 『광명데일리(Guang Ming Daily)』, 뉴스매체인 『신화』, 중국국제방송(China Radio International), 중국공영채널 중앙방송(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의 해외지사가 설립되어 운영된다.

중국은 역내 국가들의 엘리트와 대중에게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중국 간 관계를 심화시키려는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증대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III. 카자흐스탄-중국 간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

카자흐스탄의 대(對)중국 대외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경제 부문에 집중하는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발전되었으나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투자, 대외무역, GDP 등 거의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자원 부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를 지닌다. 세계 시장의 상품가격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경제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의 대(對)중

국 협력 정책에서 가장 중시되는 강조점은 경제구조를 현대화·다변화하고, 경제 내의 경쟁성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성장과 신기술 도입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중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시진핑의 방문으로 3백억 달러 상당의 계약 22건이 성사되었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Developing a Strategic Partnership)”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을 넘어서는 포괄적 협력의 추진을 기대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은 카샤간(Kashagan) 프로젝트의 지분 가운데 8.33%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얻게 된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거래액은 총 80억 달러로, 그 중 50억 달러는 카샤간 프로젝트의 지분으로, 나머지 30억 달러는 카샤간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위해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KMG: Kazmunaigaz)에 분배되었다(Gordeyeva, 2013).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방문으로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정제공장을 건설하는 데도 합의하게 되었는데, 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비노이-보조이(Beineu-Bozoi)’ 건설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재확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또한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우주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도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산업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이 카자흐스탄의 우주 프로그램의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의 첫 만남은 일곱 개 문서에 서명을 한 카자흐스탄-중국기업위원회(Kazakhstan-China Business Council)에서 이루어졌다. KMG와 CNPC 간의 두 가지 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삼룩-카지나(Samruk-Kazyna)’와 중국 CITIC(China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oration) 간에는 ‘(2020년까지 이루어지는) 카자흐스탄-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조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20억 상당의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 지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들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JSC NC ‘SEC Pavlodar’과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간의

양해각서,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와 JSC 'China-Agro-Holding' 간의 양해각서, 'Samruk Energo'와 중국수력발전공사(Chinese International Corporation of Water and Power) 간의 '이리 강(the Ili River)의 Kerbulak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협정, LLP 'United Chemical Company'과 중국 Huanku Contracting & Engineering Corporation 간의 공동 활동에 대한 협정 등이 있다.

이같이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협력은 SCO와 같은 국제기구의 틀과 양자 관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중국의 신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신실크로드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잘 분석될 수 있다. 2013년 시진핑은 중앙·남·서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새롭게 대규모 프로젝트인 '신실크로드 경제지대(New Silk Road Economic Belt)'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신실크로드'는 사실 중국의 동·서부 간의 균형발전을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신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러시아나 미국의 지역통합 전략과는 다르게, 중국의 이니셔티브는 역내에서 강대국으로서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내정 간섭을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여지가 있다.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2013년 11월 27~28일 우루무치에서 개최된 대(Great) 실크로드 경제권에 포함된 도시들 간의 발전과 협력에 관한 포럼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포럼에 참여한 주요 도시로는 알마티(카자흐스탄),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마슈하드(이란), 우루무치, 시안, 랴오닝강(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지아(Georgia)와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표도 참석했다. 주요 협정에 더해, 운송·문화·교육·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규정한 다섯 개의 문서가 추가로 조인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China daily* 2013/11/29). 또한 시 정부 차원에서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시설의 건설 및 현대화, 숙련노동자들의 이동성 증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신장 자치구가 오랜 기간 특히 활발한 경제적 협력 파트너였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무역 구조를 보면, 신장과의

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 규모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경제·환경 및 기타 제반 여건의 유사성이 높고 경제발전의 목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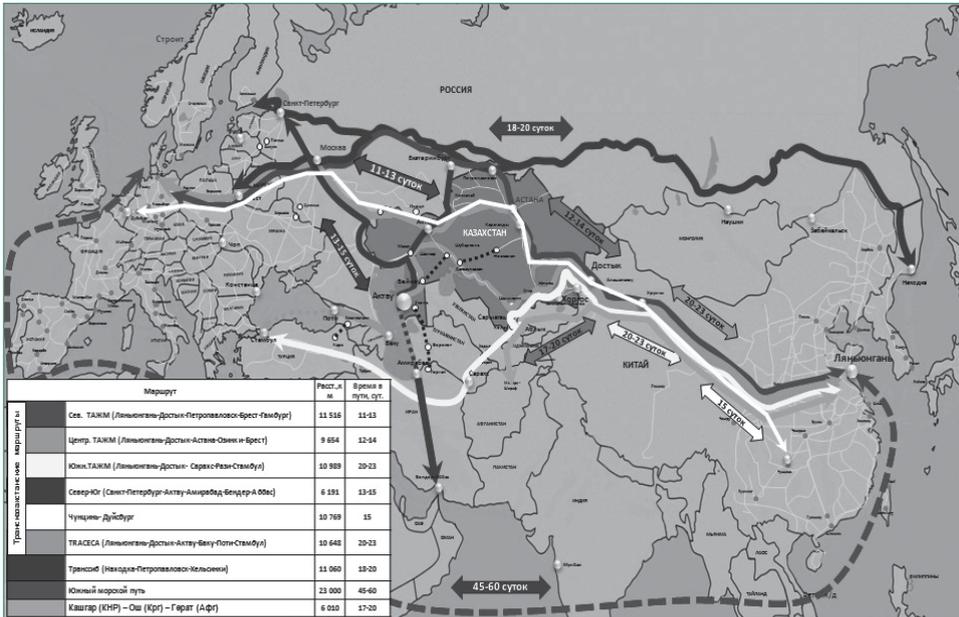
중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핵심 이익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으며, 이는 중국 전역이 아니라 서부와 중부 성들에 국한된 것임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다른 부문의 협소한 시장으로 인해 중국 투자자들의 참여에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송 시스템의 효율화와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EU나 다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운송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역시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교통·운송 시스템의 가치 역시 양자의 경제관계에서 증가했다. 2013년에 교역액이 2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2015년까지 중국은 이의 두 배를 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40억 달러 수준인 것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평가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EU 국가들로 연결되는 수송 경로는 현재의 경로들보다 훨씬 빠르고 신뢰할 만하며, 중국 서부 성들의 수출 상대국들을 다변화시켜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된다면, 중국 서부 및 중부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잠재적으로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카자흐스탄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국의 운송 인프라를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수송 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 자국 생산자들의 판로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 및 사적 부문에서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의 원천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전체 화물 가운데 80%는 철도 수송으로, 나머지 20%의 대부분이 도로 수송으로 소화되고 있으며, 운송 수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90~95% 정도가 철도 및 도로 교통수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우선순위는 철도 및 도로 확충에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는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동과 서를 잇는 두 개의 주요 통로가 존재한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부의 나홋카(Nakhodka) 항구로부터 상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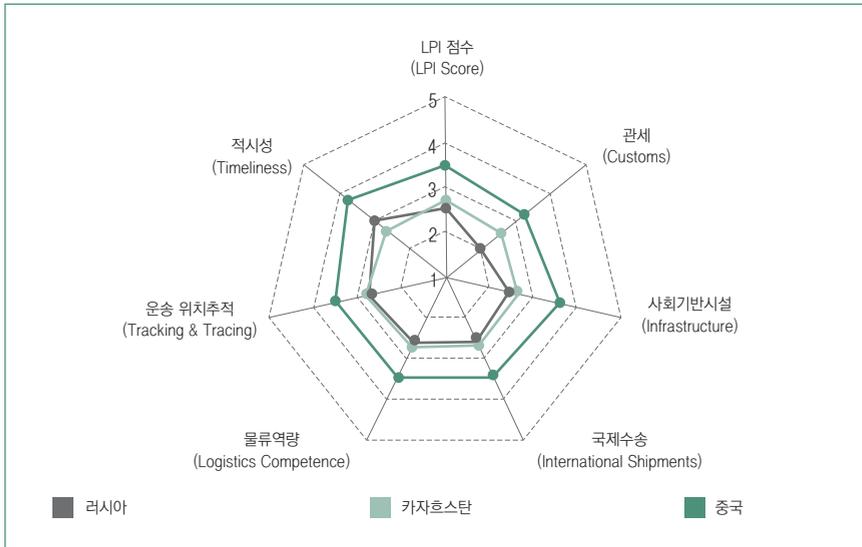


출처: JSC NC 'KTZH'.

그림 1 국제수송 시스템하에서 카자흐스탄의 위치

페테르부르크와 발트 해 연안을 거쳐 유럽과 벨라루스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경로가 있다. 남쪽으로는 남중국해 항로가 있는데, 상하이 항구로부터 중국의 긴 해안선을 따라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들어가는 경로다.

위의 두 경로는 시간과 거리의 관점에서 카자흐스탄을 직접 통과하는 경로에 비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덜 선호될 수밖에 없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경로는 중국의 충칭에서부터 국경의 카자흐스탄 도스틱(Dostyk) 역을 지나 라인 강과 루르 강 삼각주에 위치한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지역의 독일 뒤스부르크까지 연결된다. 카자흐스탄 철도 국영기업(JSC 'National Company' Kazakhstan Temir Joly)에 따르면,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경로는 1만 1100km로 18~20일 정도 걸리는 거리며, 남중국해 항로는 2만 3000km로 45~60일 가까이 소요되며, 카자흐스탄 경로는 1만 800km로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출처: 세계은행.

그림 2 2012년 물류성과지표(LPI)

(Prime Minister of Kazakhstan, 2012).

그러나 카자흐스탄 경로는 물류 시스템의 저효율성으로 인해 전체 화물량 가운데 약 5%가 이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계산한 2012년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2)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155개국 가운데 86위를 차지했다. 그림 2의 비교 분석표를 보면, 여섯 개 항목 모두에서 카자흐스탄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류 시스템에 관한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존재인데, 서방으로 중국의 물자를 수송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포함한 러시아의 수송 능력은 카자흐스탄의 직접적인 경쟁자다. 그러나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카자흐스탄보다 더 나은 수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송일자를 맞추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다섯 개의 항목에서 모두 카자흐스탄보다 낮은 성과를 얻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중국 간에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물류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횡단철도 시스템을 건

설하는 데 있어 중국은 카자흐스탄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국의 서부 및 중부 성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는데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수송·물류시스템을 중국과 연결시키고, 인프라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물류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에게 카자흐스탄은 잠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송경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IV. 카자흐스탄-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쟁점

카자흐스탄이 중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이르티슈 강(Irtysh River)을 포함한 국제 하천에서 수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수자원 분배와 국제 하천의 수질 관리, 카자흐스탄의 환경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방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연시켜 왔다. 이르티슈 강은 흑 이르티슈(Black Irtysh)라고 불리는 중국의 한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 하천이다. 수십 년간 이르티슈의 수자원은 카자흐스탄의 농·공업용수로 사용되어 왔다. 오염으로 인해 수질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명의 카자흐스탄 인들에게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며, 러시아 옴스크(Omsk) 지역의 물 소비량 가운데 90%를 충당한다(Muratshina, 2012).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사회·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장-위구르 자치구(XUAR: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로 인해 자치구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면화와 곡물 재배가 증대되었고, 흑 이르티슈로부터 사용하는 농업용수의 양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카라마이(Karamay)에 거대한 석유 저장탱크가 건설되면서 필요한 막대한 양의 용수가 이르티슈-카라마이 및 이르티슈-우루무치 운하를 통해 조달되었다. 다양한 기술적 예측에 따르면, 이들 운하는 연간 최대 6.3km³에 이르는 양이 우루무치와 카라마이로 유입된다고 한다(Alinov, 2012). 신장 지역의 개발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운하들과 저수지, 댐, 수력발전소 등이 흑 이르티슈에 건설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주민들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생태학적 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에 국제 하천을 둘러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카자흐스탄과 신장 간의 투자 흐름에 대한 전망으로, 이는 특히 중국 지도부가 신장 지역의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송·물류 시스템과 값싼 노동력의 결합은 신장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다. 가까운 미래에 해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내국 기업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적절한 입지를 찾을 것이며, 최근 해안에서 내륙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Li, 2014).

신장 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인접국인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안정에 일정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우루무치를 베이징과 상하이로 지나는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우루무치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무역·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카자흐스탄이 알마티 시에서 실행하려는 발전계획을 위협하게 한다(Suleimenov, 2013).

중국 지도부의 결정과 막대한 자금 투입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내의 부진한 성과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발 속도가 더디고 알마티 지역금융센터(the Regional Financial Center of Almaty)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성장 가능성 및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 부문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에서 해마다 상당한 국가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카자흐스탄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양국 간의 원자재 관련 협력에서의 우세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는 중국 전역이 아니라 서부와 중앙 지역 성들의 개발에서 원자재의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두산지화공(Dushanzi Petrochemical) 정유소가 카자흐스탄 산 석유의 주요 소비자라는 점 때문에 카자흐스탄-중국 관계에서 신장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의 산업

화와 이로 인한 카자흐스탄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 증가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자흐스탄의 석유 이외의 부문에 대한 중국 주요 투자자들의 참여는 최종재 판매에서 충분히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송 시스템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조건들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EEC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시장에 대한 수출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자본 자체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그다지 큰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기술 이전, 경영관리, 높은 생산 수준 등에 있다.

V. 결론

중국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중견국 카자흐스탄의 대응은 향후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단기적으로는 대외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배후지로서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핵심이익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상호 신뢰와 지지를 강화시킬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의 파트너십 증진 의지가 중국에게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정치 레짐의 특성상, 국내 정치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방침은 중국을 매력적인 국제 파트너로 만들어 줄 핵심 요소다.

중국은 몇 가지 분야에서 전략적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중요한 천연자원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시진핑이 신장 지역에서의 경제성장에 특히 관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 매장량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 잠재적인 수출 대상으로서 EU 시장과의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한 운송·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시장의 확대와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위와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CO나 신실크로드 경제지대와 같은 다자적 기제와 양자적 협력을 모두 활용하면서 상당한 양의 자금 지원과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중국 간의 관계는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비에너지 부문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여전히 협소한 카자흐스탄 시장의 여건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운송·물류시스템과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EEU와 EU 시장에 대한 수출로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단순히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경영관리 기법의 개선, 품질 기준의 강화 등과 같은 질적인 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해 보면, 카자흐스탄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경제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운송·물류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국제적인 이슈를 둘러싼 유사한 이해관계와 비전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의 관계가 보다 빠르게 심화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카자흐스탄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불개입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매우 매력적인 요인으로 계속하여 작동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다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기타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될 때 그 확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의 영역 확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linov, Makhsat. 2012. "Irtysk: Waterless Prospective?" *G · Global* (Nov 05) at <http://group-global.org/en/node/2883> (Accessed 2014/11/21).
- Avliekulov, Bunyod. 2011. "Investment Attack of China." *Economic Review* (Oct 24) at <http://www.review.uz/ru/article/301> (Accessed 2014/03/02).
- Blank, Stephen J. 2005. *After Two Wars: Reflections on the American Strategic Revolution in Central As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 _____. 2007. *U.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Them*.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 Bridge, Robert. 2012. "Chinese Foreign Policy to be 'Less Isolated, More Ambitious, More Aggressive.'" *RT* (Nov 16) at <http://rt.com/op-edge/china-russia-america-foreign-ministry-878/> (Accessed 2014/11/21).
- Cabestan, Jean-Pierre. 2010. "Central Asia-China Relations." In M. Laruelle et al. eds. *China and India in Central Asia: A New "Great Game?"* Palgrave Macmillan.
- China Daily*. 2013. "Cities Ink Silk Road Economic Belt Agreement." (2013. 11. 29) at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3-11/29/content_17141843.htm (Accessed 2014/03/02).
- Chung, C. 2004.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hina's Changing Influence in Central Asia." *The China Quarterly* 180, 989-1009.
- Clarke, Michael E. 2011. *Xinjiang and China's Rise in Central Asia - A history*. London: Routledge.
- Cohen, Ariel. 2005. *Eurasia in Balance: The US and the Regional Power Shift*. Ashgate.
-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2009. "President Hu Elaborates the Theory of Harmonious World." *New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Nov 26) at <http://english.cpc.people.com.cn/66102/6824813.html> (Accessed 2012/02/23).
- Cooley, Alexander. 2010. "SCO without Cooperation." *Keeper* (Jan 03) at http://www.psj.ru/saver_national/detail.php?ID=27943 (Accessed 2011/06/22).

- _____. 2012. *Great Games, Local Rules: The New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ummings, Sally N. 2001. *Power and Change in Central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in, Shiu and Lifang Li. 2004. "Geopolitical Interests of Russia, USA and China in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Caucasus* No. 3(2004) at http://www.ca-c.org/journal/2004/journal_rus/cac-03/17.lifrus.shtml (Accessed 2010/12/02).
- Edwards, Mathew. 2003. "The Great Game and the New Great Games: Disciples of Kipling and Mackinder." *Central Asian Survey* 22(1), 83-102.
- Forbes*. 2014. "China Takes the Second Place after Russia in Terms of Number of Kazakhstani Students Studying There." *Forbes.kz*. at http://forbes.kz/news/2014/10/19/newsid_70770 (Accessed 2014/10/21).
- Gordeyeva, Mariya. 2013. "China Buys into Giant Kazakh Oilfield for \$5 Billion." *Reuters* (Sep 07) at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9/07/us-oil-kashagan-china-idUSBRE98606620130907> (Accessed 2013/09/12).
- Hansen, Fleming Splidsboel. 2005. "A Grand Strategy for Central Asia." *Problems of Post-Communism* 52(2), 45-54.
- Ivanov, Ilya. 2013. "The Chinese Authorities Recognize the Rampant Corruption in the Country." *The Epoch Times* (Sep 28) at <http://www.epochtimes.ru/content/view/79453/4/> (Accessed 2013/10/02).
- Li, Yang. 2014. "Coordinated Efforts Needed for Industry Relocation." *China daily* (Jul 03) at http://www.chinadaily.com.cn/opinion/2014-07/03/content_17640128.htm (Accessed 2014/08/16).
- Kleveman, Lutz. 2003. *The New Great Game: Blood and Oil in Central Asia*.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 Legvold, Robert. 2003. *Thinking Strategically: The Major Powers, Kazakhstan, and the Central Asian Nexus*. Cambridge: The MIT Press.
- Luong, Pauline Jones. 2002.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tical Continuity in Post-Soviet Central Asia: Power, Perceptions, and P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cDermott, Roger. 2011. "Kazakhstan Looks East: Sino-Kazakh Strategic Partnership

- Deepens.” *Eurasia Daily Monitor* (July 5) at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8135&tx_ttnews\[backPid\]=381&chash=059dceab78bc4d5cf160d377fefff2a9](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8135&tx_ttnews[backPid]=381&chash=059dceab78bc4d5cf160d377fefff2a9) (Accessed 2011/09/14).
- Michel, Casey. 2014. “China Edging Russia out of Central Asia.” *The Diplomat* (November 1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2013. “Xi Jinping Holds Talks with President Nursultan Nazarbayev of Kazakhstan Promote Good-neighbourly Friendship, Mutual Benefit and Win-win Outcomes to Deepen China-Kazakhst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eptember 17) at http://www.fmprc.gov.cn/mfa_eng/topics_665678/xjpfwzysiesgjtfhshzzfh_665686/t1075414.shtml (Accessed 2013/09/10).
- Millward, James A. 2007. *Eurasian Crossroads: A History of Xinjiang*. London: Hurst and Company.
- Muratshina, Xeniya. 2012. “The Irtysh River in the Hydro Policy of Russia, Kazakhstan and China.” *Russian Council on Foreign Affairs* (May 23) at http://russiancouncil.ru/inner/?id_4=415#top (Accessed 2012/05/27).
- Olcott, Martha Brill. 2005. *Central Asia’s Second Chan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Pantucci, Raffaello. 2014. “The Route to Better Relationships with China Lies Along the Silk Road.” *Financial Times’ Beyond Brics* (January 8).
- Petersen, Alexandros. 2013. “China is Pivoting to Central Asia-But Is Washington Paying Attention?” *The Atlantic* (October 28).
- Prime Minister of Kazakhstan. 2012. “Kazakhstan Broadens the Geography of Transport-Logistics Strategy.” Official Site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RK (Dec 26) at <http://www.primeminister.kz/news/show/21/kazakhstan-rasshirjaet-geografiju-transportno-logisticheskoy-strategii/26-12-2012> (Accessed 2013/01/23).
- Radiotochka. 2014. “China’s ‘soft power’: Central Asia at a Point.” *Radiotochka.kz* (Jan 25) at <http://radiotochka.kz/1592-.html> (Accessed 2014/02/07).
- Rousseau, Richard. 2013. “Kazakhstan: Continuous Improvement or Stalemate in Its Relations with China?” *Strategic Analysis* 37(1), 40-51.

- Roy, Olivier. 2000. *The New Central Asia: Geopolitics and the Birth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ahmbaugh, D. 2006.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Cambridge: MIT Press.
- Salitski, Alexander. 2013. "China and Eurasian Plans of Russia Part 2." *ЦентрАзия* (Oct 12) at <http://www.centrasia.ru/newsA.php?st=1381535160> (Accessed 2013/11/01).
- Sheives, Kevin. 2006. "China Turns West: Beijing's Contemporary Strategy Towards Central Asia." *Pacific Affairs* 79(2), 205-224.
- Suleimenov, Ruslan. 2013. "By 2020 Urumqi Will Become Central Asia's Trade Center." *Inform.kz* (Jan 10) at <http://inform.kz/rus/article/2525015> (Accessed 2014/11/23).
- Swanstrom, N. 2005. "China and Central Asia: a New Great Game or Traditional Vassal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4(45), 569-584.
- Wishnick, E. 2002. *Growing U.S. Security Interests in Central As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 Witte, Michelle. 2013. "Xi Jinping Calls for Regional Cooperation via New Silk Road." *The Astana Times* (Sep 11) at <http://www.astanatimes.com/2013/09/xi-jinping-calls-for-regional-cooperation-via-new-silk-road/> (Accessed 2013/10/27).
- Xinjiang Normal University. 2014. "Facts & Statics." at <http://www.xjnu.edu.cn/s/179/t/310/p/1/c/5494/d/5713/list.htm> (Accessed 2014/12/29).
- "China, Kazakhstan Upgrade Relationship." *People's Daily Online* (June 14, 2011) at <http://english.peopledaily.com.cn/90001/90776/90883/7409016.html> (Accessed 2011/11/29).
- "China-Kazakhstan Relations Grow Stronger." *China Daily* (October 15, 2007) at http://www.chinadaily.com.cn/cndy/2007-10/15/content_6173531.htm (Accessed 2011/11/29).

Abstract

China's Central Asian Strategy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azakhstan

Yevgeniy Khon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Beom-Shik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ew leadership of PRC will continue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by using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SCO an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s well as b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mutually beneficial interests, especially in the field of economic development. The “fifth generation” will also adhere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and introduce diverse diplomatic means, particularly soft power diplomacy. In this regard, Kazakhstan can share some advantages of cooperation with China, especially in the energy and transportation sector. However, there also exist several controversial aspects in Kazakhstan-China cooperation: potential conflicts on th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pollution problems of trans-boundary rivers, particularly the Irtys River, and competition for FDI between Almaty and Xinjiang in the region. Nonetheless, deepening economic relations between Kazakhstan and China is expected due to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to internal affairs, common strategic interests and similar vision on key international issues. For Kazakhstan, cooperation with China will be an opportunity to further diversify its economy and reach new markets by developing efficient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favo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Keywords | China, Kazakhstan, Central Asia, economic cooperation, New Silk Road Economic Belt